

# 전남 홀몸노인 10명중 7명 생활비 직접 번다

### 통계청 생활상 발표...광주·전남 65세 이상 1인 가구 15만명 자녀 지원 평균 20% 불과...광주는 연금·전남은 일해서 충당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자녀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고령자 1인 가구 65.7%는 직접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퇴직급여나 있는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노후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고령자 1인 가구 생활상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광주 4만명·전남 10만4000명 등 총 14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고령자 1인 가구는 올해 처음 4만명을 넘겼고, 전남은 지난해 10만명을 돌파했다. 전남지역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14.2%로, 전국 평균(7.8%)을 크게 웃돌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 비중은 6.9%(11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역 고령자 1인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본인 부담'(광주 43.8%·전남 45.7%)이 가장 많았다.

이외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 받는다'는 응답은 광주 34.9%·전남 35.9%로 나타났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은 광주 21.3%·전남 18.7%였다.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응답자 가운데 그 방법은 노동 각 격차를 보였다.

광주지역은 절반 이상(51.4%)이 연금·퇴직급여로 충당한다고 답했고 ▲근로·사업소득 31.7% ▲재산소득 11.4% ▲예금 5.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 고령자 1인 가구는 직접 일을 하며 생활한다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정부나 자녀 도움을 받지 않는 전남 독거노인 10명 가운데 7명 꼴로는 일을 해야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전국 평균 47.4%를 크게 웃돈 수치다.

이어 ▲예금(12.9%) ▲연금·퇴직급여(12.7%) ▲재산소득(8.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퇴직급여 응답률은 2015년 29.8%, 2017년 28.9% 등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32.1%)을 크게 밑돌았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곳은 광주는 아파트가 많았고, 전남은 단독주택이 대다수였다.

2018년 기준 유형별 거처는 광주의 경우 60.6%가 아파트고, 단독주택 35.8%, 연립·다세대주택 2.6%다. 전남의 경우 82.2%가 단독주택이고, 아파트 15.5%, 연립·다세대주택 1.5%다.

지난 2018년 조사 결과 고령자 1인 가구를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지역민 3분의 1 이상이 '가족과 정부·사회'(광주 34.9%·전남 39.4%)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이어 '가족'(27.8%), '스스로 해결'(24.5%), '정부·사회'(12.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남도 가족(26.3%), 스스로 해결(18.3%), 정부·사회(16.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 고령자 1인 가구 65% 이상은 2년 전인 2017년보다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나빠졌다는 답변은 광주 2.4%·전남 1.7%에 머물렀다.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고령 1인 가구는 광주 56.2%·전남 69.0%에 달했고, 정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응답률은 각 25.8%, 16.6%로 비중이 점차 줄고 있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8.61 (-0.15)
- ↓ 금리(국고채 3년) 0.946 (-0.014)
- ↑ 코스닥 668.17 (+9.77)
- ↑ 환율(USD) 1225.00 (+2.90)

## 광주 아파트 매매가 6주 연속 하락

### 전세가는 보합세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5월 1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과 달리 광주는 전월보다 -0.03%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 4주(-0.01%)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뒤 4월 1주(-0.01%), 4월 2주(-0.03%), 4월 3주(-0.02%), 4월 4주(-0.02%) 등 6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전세가격 역시 광주는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와 북구 등은 변동률 0%로 전체

적으로 보합세 보이는 가운데 동구(-0.01%)는 신규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남구(-0.01%)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인천(0.22%), 경기(0.10%), 대전(0.08%), 세종(0.08%), 충북(0.08%)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강원(0.00%)은 보합, 제주(-0.12%), 서울(-0.06%), 경북(-0.04%), 부산(-0.04%),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세종(0.14%), 인천(0.11%), 충북(0.09%), 울산(0.08%), 경기(0.06%) 등은 상승했고, 광주(0.00%), 대구(0.00%)는 보합, 제주(-0.02%), 경북(-0.01%), 전북(-0.01%), 부산(-0.01%)은 하락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기아차 광주공장 “첫째도 품질, 둘째도 품질”

### 품질 향상 결의대회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7일 광주3공장에서 품질향상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속적인 고객 중심의 품질향상활동을 펼쳐 전제적인 품질 수준을 높여왔지만, 고객이 인식하는 첫 대면 품질 부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더 높은 품질의 차량을 인도하자는 의미를 담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광주공장 품질혁신실을 시작으로 28일 광주1공장에 이어 이날 5월 14일 광주2공장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입고, 확인, 출고까지 책임지는 검사의 역할을 더 강화해 고객 첫 대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고 ▲



우리가 자체 해야 할 일을 의지표명하고 ▲우리가 실천을 통하여 대면 품질을 확보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를 통해 품질혁신실은 검사 강화로 고객 대면 품질 및 만족도 향상, 1공장은 표준작업 및 절차 준수, 2공장은 일일점검 작

작, 3공장은 자공정 품질보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서비스업 생산, 1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 코로나19 직격탄...운수·창고·숙박·음식점업 저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광주·전남 서비스업이 생산액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매판매 부문에서는 광주지역 감소율이 처음으로 -5%대를 나타냈고,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매 판매액이 증가했다.

7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 -5.6% 감소, 전남은 3.9% 증가했다.

광주 백화점 판매액은 -12.5%, 대형마트는 -6.8% 감소한 반면 슈퍼·잡화·편의점 판매는 9.5% 증가했다. 전남은 대형마트(-0.5%), 전문소매점(-4.7%) 판매는 줄고 슈퍼·잡화·편의점 판매는 17.1% 크게 늘었다.

광주·전남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1분기 서비스업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 -0.3%·전남 -0.4% 줄었다. 서비스업 타격은 운수·창고업 생산액 감소율은 광주 -16.8%·전남 -11.4%로 나타났으며 ▲숙박·음식점업(광주 -14.9%·전남 -7.3%) ▲예술·스포츠·여가(광주 -17.6%·전남 -8.4%) 등이 뒤를 이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중소기업 15개사 '스타기업' 선정

### 광주테크노파크·광주시, 3년간 컨설팅·수출 등 지원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는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광주지역 중소기업 15개사를 '스타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가 지난 2018년부터 지역 특성화지표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상 지

정·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15개사를 포함해 46개사가 지정됐으며, 2022년까지 총 75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스타기업의 요건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400억원, 최근 5년 평균 매출증가율 5%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비

중 평균 1% 이상,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70% 이상 등이다.

이번에는 ㈜에이엠특강, ㈜현대하이텍, 에이치디티(주), 알텍(주), ㈜비에이에너지, ㈜세텍, 신소재산업(주), ㈜디알텍, ㈜현대금속, 세센도리, ㈜남양조명공업, ㈜월드플러스전자, ㈜은혜기업, ㈜에스디엠, ㈜정익 등이 스타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스타기업 지정은 3년간 유지되며, 첫째 기술 성장 컨설팅(R&D 과제 기획, 개발 로드맵 등) 등을 지원 받는다. 2-3년 차에는 수출(마케팅,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등 기업 맞춤 전용 프로그램으로 총 7200만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이다.

1년 후에는 제한경쟁 공모를 통해 최대 2억원 내외의 상용화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담PM(프로젝트 매니저) 배정을 통해 기술·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앞서 선정된 스타기업 31개사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8% 증가했고, 신규 고용창출 121명, 사업화 매출액 64억원 달성 등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